

의안번호	제 29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9월 16일 (제294회)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제 안 자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연월일	2010년 9월 8일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의안 번호	29
----------	----

제안연월일 : 2010년 9월 8일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 제안 이유

-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의 주식인 쌀의 풍작에도 불구하고, 식생활 문화의 서구화 등에 따른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쌀 시장 개방을 미루면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또한 2008년 이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도 중단되어 쌀 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자 함.

☐ 붙임 : 건의안

☐ 보낼곳 : 청와대,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통일부,
국회의장실 · 부의장실,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현인택 통일부 장관님,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박희태 국회의장님,
정의화·홍재형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님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우리 충청북도의 회 의원 모두는 155만 충북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계절을 맞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과 즐거움도 잊은 채 남아도는 쌀 문제로 시름과 한숨의 나날을 보내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이렇게 뜻을 모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쌀은 5천년 민족의 생활속에 응집된 우리의 혼입니다.

농민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사명과 자긍심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땀과 정성의 나날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원인이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주식인 쌀의 재배와 생산량을 증대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고 정부에서도 각종 시책으로 이를 뒷받침하였으며 이러한 노력과 과학영농에 힘입어 해마다 그 생산능력을 증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식생활 문화의 급속한 서구화 등으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농민들은 남아도는 쌀을 걱정하기 시작하였고 수확을 앞

둔 들판을 기쁨보다는 걱정으로 바라 보아야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어려운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 ‘아침 식사하기’, ‘내 고향 쌀 팔아주기’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쌀 소비를 증대하는데 노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만도 올해 32만 7천 톤으로 2014년까지 매년 2만 347톤씩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마저 2000년도부터 해마다 40여 만톤이 지원되었던 것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008년 부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쌀 재고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재고량이 149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관리비용 또한 막대할 것입니다.

쌀 재고가 늘어나면서 쌀값도 떨어지고 있는데 산지 기준으로 작년 2월 80kg 한 가마에 16만 2천원이던 것이 지난 달 말에 13만 원대로 급락하였고, 가을 수확이 이루어지면 쌀 값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는 ‘쌀 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을 발표를 통해 올해 생산되는 쌀 가운데 예상 수요량을 넘는 40~50만톤의 물량을 모두 매입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4만 ha의 논을 다른 작목 재배용으로 전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수급조절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만 늘리는 단발성 정책으로 일관적이고 지속성있게 추진될 수 있는 쌀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어려움을 겪는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쌀 재고 문제를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최근 신의주를 비롯 북한이 심각한 수해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벼의 최소 적정생산 재배면적 이외의 논에 대체 작물 재배단지를 대폭 확대해 줄 것과 타 작목 재배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쌀 목표가격 인상 및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을 현행 8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1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